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문페이스 디스플레이와 투르비옹 기능을 결합한
마스터 울트라 싼 투르비옹 문

예거 르쿨트르가 탄생시킨 마스터 울트라 싼 컬렉션은 기술적 위업과 미학적 가치를 결합하는 매뉴팩처의 철학을 고스란히 구현합니다. 2020 년, 예거 르쿨트르는 마스터 울트라 싼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확대해줄 **마스터 울트라 싼 투르비옹 문**을 공개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타임피스는 예거 르쿨트르의 시그니처 퍼리퍼럴 '점핑' 데이트와 함께 메종의 오랜 역사상 최초로 시계 분야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온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 문페이스와 투르비옹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마스터 울트라 싼 투르비옹 문**은 셀프-와인딩 칼리버 983 으로 구동되는 첫 번째 타임피스이기도 합니다.

투르비옹은 19 세기 초 중력이 포켓 위치의 이스케이프먼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 세기에 이르러 포켓 위치 대신 손목 시계가 널리 사용되면서 투르비옹은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1946 년, 예거 르쿨트르는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끝에 투르비옹 무브먼트, 칼리버 170 을 개발했습니다. 크로노메트리 대회를 위해 포켓 위치에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1948 년 뇌샤텔 국제 관측소 100 주년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데 이어 1950 년대에 몇 번의 수상 경력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투르비옹 손목 시계가 매우 드물었던 1993 년, 예거 르쿨트르는 직사각형 칼리버 828 을 설치한 최초의 리베르소를 제작했고,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간 결과 2004 년에는 새로운 차원의 투르비옹으로 일컬어지는 최초의 구체 이중 축 투르비옹, 마스터 자이로투르비옹 1 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09 년, 매뉴팩처는 스위스 르 로클의 시계 박물관(Horological Museum)에서 주최한 국제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칼리버 978 을 장착한 마스터 투르비옹을 공개했습니다. 칼리버



978 은 출시 이후 예거 르쿨트르 투르비옹 무브먼트의 중심 토대가 되어왔으며, 2019 년에는 최고급 마감 기법이 적용되어 전면적인 변화를 거쳤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들은 **마스터 울트라 씬 투르비옹 문**을 제작하기 위해 978 무브먼트를 활용하여 문페이스와 '점핑' 데이터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칼리버 983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월령을 비롯해 남반구/북반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모양을 보여주는 트리플 문페이스 인디케이터도 상대적으로 최근인 작년에 개발된 성능입니다. 시간당 28,800 회(4Hz) 진동하는 칼리버 983 은 45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핑크 골드 합금과 함께 시대를 뛰어넘는 스타일

마스터 울트라 씬 투르비옹 문은 르 그랑 로즈 골드(Le Grand Rose gold) 소재의 케이스로 선보입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핑크 골드 합금은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와 깊이 있는 컬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본연의 색채를 유지하는 탁월한 내구성이 돋보이는 소재입니다. 클래식한 품격이 느껴지는 마스터 울트라 씬의 디자인 코드에 따라 케이스는 폴리싱 처리되었으며, 슬림한 베벨 형태 러그와 섬세한 베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그셀 화이트 컬러의 다이얼은 따뜻한 톤의 핑크 골드와 조화를 이루는 차분하면서도 절제된 배경이 되어 문페이스 디스플레이와 투르비옹을 강조하고, 애플리케 골드 인덱스의 긴 화살 형태를 연상시키는 도피네 핸즈는 타임피스에 세련된 감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다이얼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형되면서 모습을 바꾸는 인덱스의 모습과 가독성을 높이고 컬러감을 더하기 위해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몇 가지 주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오리지널 디스플레이

다이얼 상단부에 자리한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북반구의 문페이즈를 표시합니다. 별들이 촘촘히 수 놓인 질푸른 하늘 위, 폴리싱 처리된 골드 디스크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는 더블 엔드 핸드를 통해 각각 남반구 문페이즈 및 월령을 표시하는 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들은 퍼리퍼럴 날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의 시그니처 '점핑' 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매달 날짜 핸드는 투르비용을 가리지 않도록 15 일과 16 일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르게 90 도로 점프합니다.

다이얼 하단부는 투르비용을 위한 공간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폴리싱 처리된 핑크 골드 소재 브릿지는 60 초마다 1 회전하면서 티타늄 투르비용 케이스(부품 포함 무게: 약 0.3g)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최고급 투르비용 브릿지와 넓은 표시창을 통해 시계를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드러나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반대편에는 길게 이어진 오픈워크 투르비용 브릿지가 거침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꼬뜨 드 제네브(Côte de Genève) 장식이 메인 플레이트에 새겨진 선레이 패턴의 스트라이프와 조화를 이룹니다. 표면이 폴리싱 및 마이크로 블라스팅 처리된 JL 로고 장식의 오픈워크 핑크 골드 와인딩 로터는 블루 스크류, 원형 그레인 처리, 챔퍼링 브릿지 등 최고급 마감 기법이 적용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는 창이 되어줍니다.

마스터 울트라 씬 투르비용 문은 모든 예거 르쿨트르 타임피스와 마찬가지로 시계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테스트 프로토콜 중 하나인 1,000 시간의 컨트롤 인증과 함께 8 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합니다.



기술 사양

크기: 41.5mm x 12.10mm

칼리버: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83, 시간당 28,800 회(4Hz)

기능: 시, 분, 초, 퍼리퍼럴 '점핑' 데이트(15 일 ~ 16 일), 투르비용, 남반구/북반구 문페이스 및 월령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5 시간

케이스: 르 그랑 로즈 골드(Le Grand Rose gold)

다이얼: 에그셸, 애플리케 인덱스, 도피네 핸즈

케이스백: 오픈

방수: 5 바(bar)

제품 번호: Q1692410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워치메이커들 중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